

News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달 새 0.2%P 올라...상승세 시작됐다

한국경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의 올라... 은행들의 자금 조달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5대 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2.23~2.69%을 기록... 한 달전 대비 0.19~0.33% 올라...

영끌에 빚투... 2030 '마이너스 통장' 급증

파이낸셜뉴스

2030세대가 만든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이 62조원을 넘어서...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세대가 만든 것...
2019년 들어 20대의 신규 계좌수가 급등... 2018년까지 최대 6만9234건에 머물렀지만, 2019년 들어 8만2538건으로 1만 계좌이상 급증...

클릭 몇번만에...시중은행 신용대출도 60~70% 온라인으로

연합뉴스

시중 은행권에서도 '비대면' 신용대출의 비중이 절반 넘어서... 코로나19 탓에 고객들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 은행들도 낮은 금리를 비대면 신용대출에 적용...
"고객을 무방비 상태로 뺏기지 않으려면 전통적 은행들도 비대면 대출 상품에 금리 혜택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네오플렉스, 신한금융지주 17번째 자회사 편입

전자신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네오플렉스를 신한금융그룹 17번째 자회사로 편입... 두산과 네오플렉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개월 확인 실사 과정을 거쳐...
"네오플렉스를 자회사로 편입해 기업 전 생애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룹 투자금융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코로나 이후 생보 빅3 보험금 부담 1조 늘었다

데일리안

빅3 생보사들의 보험부채적정성평가 액수는 264조41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2843억원 늘어나...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낮아진 시장 금리가 원인...
"코로나19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저금리 기조도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생보사들의 재무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

보험사 2분기 지급 여력 비율 277.2%... 전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

세계일보

보험사 지급여력(RBC)비율이 277.2%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 가용자본이 11조4000억원 증가... 요구자본은 2조1000억원만 증가...
"2분기 기준으로 보험사 RBC비율은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한다"

증권사 대출금리 낮아질까...금융당국, 산정기준 변경

세계일보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확 바뀌어... 앞으로는 기업어음 금리 등 기준금리를 사용...
지난 8월 말 기준 신용공여 대출금리는 5.75~8.75% 수준... 발표된 개선방안은 다음 달부터 실시...

'라임사태' 제재 초읽기...10월 운용사·증권사 'CEO도 제재'

뉴스1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운용사와 증권사 등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가 10월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10월29일에 예정... CEO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감사의견서가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